

GE, 수처리제 수익 40억달러 목표

수처리제 판매증가율 연평균 8% 계획 ... 중국매출 2005년 50억달러

GE(General Electric)가 수처리제 사업의 2005년 수익목표를 현재보다 15억달러가 많은 40억달러로 책정했다.

GE는 2003년 3월7일 발행된 연례 보고서에서 수처리제 사업이 350억달러로 연평균 8% 성장하는 고수익성 사업이며 수요기업들의 조달이 증가하고 있는 세분화된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GE는 2002년 Hercules로부터 BetzDearborn의 자산 18억달러를 인수하고 수처리제 시장에 진입했다. 또, 수질정화 및 여과장치 생산기업인 Osmonics을 인수해 운영마진이 20%에 달하고 있다.

수처리제는 GE의 6개 사업플랫폼의 하나로 운영수익이 몇년 안에 1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사업에는 건강관리 정보기술, 압축기 및 터빈을 포함하는 석유 및 가스기술, 안전 및 센서, Hispanic 브로드캐스팅 및 미국 소비자금융 사업이 있다.

GE는 2005년까지 중국에서 매출 50억달러를 거둘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GE의 주요 중국전략의 하나는 디스플레이션 파워를 수출하는 한편 시장확대에 주력하는 것인데, 4개 사업의 하나인 GE Plastics이 이미 10억달러 수익에 바짝 다가섰다. 나머지 사업으로는 의약품, 엔진 및 동력이 있다.

중국에는 플라스틱의 판매기업수가 미국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전반에 걸친 소싱(Sourcing)으로 코스트 1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E Plastics 및 GE Specialty Materials로 구성되는 GE의 소재사업 수익은 2002년 76억5000만달러로 8%가 증가했으나 운영수익은 플라스틱 사업의 약화한데 영향을 받아 11억3000만달러로 21%가 감소했다.

그 중 GE Plastics의 운영수익은 2002년 8억4300만달러로 28%가 감소했는데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원료코스트가 인상한데 원인이 있다. 2002년 매출은 52억5000만달러로 저조했다.

GE Special Materials의 수익은 BetzDearborn의 인수 이후 24억1000만달러로 32%가 증가했고 운영수익은 매출증대 및 원료코스트가 하락해 2억8200만달러로 6%가 증가했다.

<Chemical Journal 2003/10/23>